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오전 (2부) 7시 30분
오전 (3부) 7시 30분
오전 (4부) 7시 30분
주요일배 (1부) 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8월 4일 (제701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주요일배 (1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의리에 살자

마가복음 2장에는 네 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 주위에는 이미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 다가갈 수가 없자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인 친구를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왔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나는 이 네 친구를 '의리의 사나이'라고 부르고 싶다. 어떻게든 친구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으로 뜯뜯 뜯 뜯 친구로서의 도리를 다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의리(義理)'란 사람이 마땅히 할 도리를 말한다. 이 말인즉슨 의리를 지키는 자라야 사람이라는 것이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요나단은 왕자로서 차세대 왕좌에 오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 사울의 계계를 알려주어 다윗을 살려냈다. 그 후 사울의 왕권을 이어 받은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찾아 궁에서 살게 했고, 그와 겸상을 할 정도로 그를 사랑했다. 이것이 바로 의리다.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이 '의리'다. 눈앞에 이익 앞에서 먼저 의리를 생각할 줄 아는, 곧 견리사의(見利思義)할 줄 아는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어디 의리를 지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던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던가. 성경은 말씀하신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잠10:2),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잠11:4).

정치경제사에서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끝까지 의리를 지킨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배신하는 자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의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자.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를 기다리신다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진행된 제17회 청소년연합수련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죄 많은 이 세대에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감동을 해소하고, 성령으로 재충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번 수련회에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다. 먼저 하나님은 날씨를 축복하셨다. 이번 수련회는 전국이 장마 권에 들어있어 수련회 당일인

다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창에 찔린 것은 바로 우리의 무한한 꿈을 위해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요14:12)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꿈은 곧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후로 큰 꿈을 꾸어 이뤘고, 처칠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찍어놓은 수상 판저 사진을 매일 보며 '장차 나도 저 집에 살 거야'라

고, 그의 아내가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일은 이뤄야 한다고 작심하여 마침내 그 목표를 이뤄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효과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모에게 순종했고, 부모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다. 부모에게 투정이나 부릴 나이가 아니다.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제17회 청소년연합수련회(2013년 7월29일~31, 장성예루살렘기도원)

29일에도 장성 하늘엔 굵은 비가 떨어졌으나, 수련생들이 조금씩 도착하자 놀랍게도 하늘은 금세 맑게 개어 있었다. 더욱이 다른 지역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기에 더욱 놀라웠다. 이는 마치 애굽 군대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던 것과 비교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총회장 목사님은 이틀간 이어진 저녁설교를 통하여 수련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선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 삶은 곧 만남이니 인맥을 형성하라!'고 반복 강조하셨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 곧 상상을 초월하는 꿈을 꾸는 자들이다. 부모도 꿈을 향하여 질주하는 자식을 위해 행상도 마

고 생각하고 꿈을 키우더니 영국의 역대 최고의 수상이 되었으며, 맥아더 역시 아이젠하워의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 인천상륙작전의 꿈을 이뤘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도 위인들과 시대를 뛰어넘는 만남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간과해서 안 될 일은 지극히 작은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날개가 되어줄 수 있고, 징검다리기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니아(mania)정신, 하교야 말겠다는 기필코 정신이 있어야 하고, '못 말린다,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을 세우고 갈 때, 남군에 이복동생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분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 교회에 나왔다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는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가르치네? 정말 깨닫는 것이 많다. 내 인생이 변화되어 간다."고 했고, 지교회에 한 주의 종은 "정말 영혼의 역기스를 마신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처럼 목사님의 말씀은 이 수련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르침이었다.

기도원에 모인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고, 기도와 찬양, 말씀, 나눔과 교제로 수련회를 가득 채웠다.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담아내는 인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손'임을 확인한다.

중고등부 교사 문현영



이초석 목사 하계산상집회

기간: 8월 5일(월) ~ 22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1600-0688, 061-392-0633

구독신청 : 1600-0688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말3:7~12)

십일조는 현대판 선악과다

‘돈과 삶’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거지 아이가 하나 나타나 사람들은 그를 ‘르 갈레’ (불러오려로운 사람이란 뜻)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푸줏간에서 배달을 해서 돈을 모아 고리 대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그의 별명이었던 갈레를 넣어 ‘마르탱 갈레’라고 불렀고, 그가 더 돈을 많이 모으자 ‘마르탱 씨’라고 불렀으며, 더 부유해지자 ‘마르탱 남’이라고 했고, 마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되자 ‘마르탱 나르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인격이고, 돈이 힘이고, 돈이 선(善)이고, 돈이 신(神)입니다.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청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돈, 돈 하고, 돈 벌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난리를칩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게 돈이 쉽게 벌립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드리려 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지요? 그 비결이란 바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십일조란 말 그대로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십일조’라는 말이 처음 성경에 나오는 곳은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벨기세베크에게 노획물 중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드려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소산물, 나무와 과일, 소와 양의 10의 1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14장 22절 이

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말3:10~12). 십일조를 하면 내가 복을 주는지 직접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꼭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천국의 창고를 열 수 있는 키가(key)가 십일조라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구원과는 별도로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현대판 선악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판 선악과를 팔 것이냐, 팔 것이냐는 온전히 여러분의 의지에 달

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십일조가 그렇게 어렵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중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 더, 십일조를 드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아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고 율법의 더 중한 바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23:23).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박아나 회향 같은 중요 소산물의 10분의 1은 엄격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의(義), 사랑(仁), 믿음(信)은 온데간데없이 형식과 의식만 지켰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십일조를 드릴 때는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끔 지교회나 기도처의 주의 종들이 헌금에서 십일조를 떼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 주의 일을 하는데 세삼스레 십일조를 뺄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월권입니다. 제 목회 초창기인 1991년 어느 날,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상 중에 갑자기 소가 나타나더니 저에게 “도

독놈”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제가 “누가?” 하고 물

었더니, 소가 “네가” 그러는 겁니다.

이상을 본 저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적이 있나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올림픽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파한 후 쿠빈실에서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더러는 예를 들자 오기도 하고, 더러는 개인적인 용돈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김종일 장로가 그것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많아서 제게 용돈으로 쓰라고 준 돈을 그들에게 주곤 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돕는 것도 주의 일인지라 십일조를 떼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깨닫고, 지교회 모든 목사들이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십일조를 명령했습니다. 그 후 우리 교단은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었고, 큰 전대를 차고 세계를 복음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 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말3:8).

일본의 원형 목사가 노숙자를 상대로 목회를 하면서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십일조를 드리자니 당장 쓸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인데…」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동전을 손에 쥐고 아까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손을 펴니 금세 돈에 666이라고 쓰여있었는지 뭘니까? 깜짝 놀라 꿈을 깨 그는 ‘666은 마귀 숫자 아닌가?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구나’ 하고 깨닫고는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후로 동전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모든 물품과 먹거리를 풍족하게 대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도 풍족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십일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매달 십일조를 떼서 보내는 자들은 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원금을 받고도 여전히 쪼들립니다. 교회 재정이 힘들니까? 온전한 십일조를 하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또한 아들이 목사라고, 동생이 전도사라고 기도처나 지교회로 십일조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곳에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인천의 정광훈 장로님은 아들이 이천 교회의 목사인데도 십일조는 꼭 인천교회에 드립니다.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천 교회의 정재일 목사가 자기 손으로 짓지 않은 건물을 인수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본부에서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나 기도처가 복 받도록 하기 위함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십일조는 축복의 종자입니다. 이 종자를 하늘에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십일조는 현대판 선악과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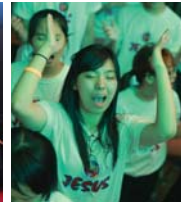
하에는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18장 21절과 2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십일조를 주라고 말씀했고, 레위인은 그들이 받은 것 중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곧 십일조의 십일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민18:26).

그렇다면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봅시다. 오늘날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제 17회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 (7.29~31)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성경에서 배운다::

대가(代價)를 지불하라!

사람은 누구나 공짜를 좋아한다. 그리고 노력 없이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세상에 사기사건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거저 얻고자 하는 것이 '구절'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심은 만큼 거두기에 열심히 뿌려야 한다는 이 단순한 원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우리는 흔히 다윗을 아벳도리가 들어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한 왕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가 왜 그렇게 온몸을 던져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는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감내했기 때문이다.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언약 궤였다. 하지만 엘리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 중 언약궤를 빼앗겼고, 이후 왕이 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감망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다. 하지만 엄청난 무게의 언약궤를 수레로 편하게 옮기려면 그의 경솔함은 웃

사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이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이 금으로 된 엄청난 무게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여섯 걸음을 땀 때마다 소 한 마리를 제사로 드렸는데 이 여정은 자그마치 20km가량에 이르렀다.

상상해보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언약궤를 눈으로 확인할 때쯤엔 자신이 보낸 레위인들이 먼지와 피, 땀으로 온 몸이 얼룩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가오는 데, 다윗이 그 어떤 춤이라도 추지 않고 견딜 수 있었겠는가 말이다.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 우리는 흔히 구원의 은혜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기에 가볍고 쉬운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그 무겁고 아픈 대가는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이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 통곡

하는 것세마네 기도가 있었고,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는 피맺힌 걸음이 있었으며, 살이 찢기는 고통과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이처럼 죄로 막혔던 회개를 찢기 위해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처절한 죽음으로 희생시키는 대가를 지불하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버린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루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심을 것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온통 먼지를 뒤집어쓰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고통을 필요로 한다고 할지라도 소중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 아니 일한 것보다 더 큰 열매로 화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날 '대가를 지불하라!'

하인영

renming@daum.net

Good News

래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석유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세 명의 젊은 사업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쾌락을 즐기 위해 비행기를 통해서 전세 내어 함께 뉴욕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이나 최고의 귀빈들만이 묵는다는 뉴욕 변화기의 엠버서더 호텔 29층 프레지던트 룸을 예약했습니다.

그들은 들뜬 마음으로 키를 프론트에 맡기고는 고베 풀린 망아지처럼 뉴욕의 밤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이 맞도록 술을 마시고 또 마셨

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가 되어 비틀거리며 호텔에 돌아와 보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숙소인 29층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계단을 통하여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은 고개를 연신 숙여대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빈방에서 잠만 쉬고 있으면 수리가 끝나는 대로 모시러 가겠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취중에 객기가 발동하여 29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비틀거리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갈수록 힘이 들었습니다. 거의 기다시피 하여 두 시간 만에 29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방문 앞에 서서 문을 열려고 하니 가장 중요한 것을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프론트에서

방 열쇠를 받지 않고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올 생각을 하니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때 마침 청소를 담당하는 흑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올라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나 열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마침 제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청소부가 덧붙인 의미심장한 한마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Edu Section::

명상의 시간(Quiet Time)이 필요한 이유

작가들이 글을 쓸 때 그들이 만들어 내는 단어의 최대 한계치를 시간당 단어라고 한다면, 작업을 시작하고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에 그들의 최대 효용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 시간이 접어들면서부터는 글쓰기 작업의 효용성이 절반가량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아이가 정상에 우뚝 서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에 앉아 있으면 스스로 통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휴식은 인간의 육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항목이란 것을 기억해야 하며, 자녀의 삶을 학습으로만 가득채우기보다는 적절한 휴식시간을 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휴식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명상의 시간이다. 넉넉한 휴식의 시간과 긍정적인 명상의 시간은 자녀를 더욱 활기

차게 만들 수 있는 자녀 성장의 비타민이 될 수 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자녀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대화를 나누면서 명상의 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막연한 명상은 허허로운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순식간에 변할 수도 있다. 빛보다 빠른 속도를 지닌 생각을 항상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많은 것들을 어릴 적부터 깨우쳐주어야 할 것이다. 채워지지 않은 빈 통에서는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무한대의 자산을 명상의 시간을 통해서 자녀에게 채워주어야 한다.

세상을 살다보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때때로 찾아온다. 그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은

하루아침에 그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소 부모와 함께 나눴던 명상의 시간 동안 채워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긍정의 생각들이 자녀들에겐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적당한 휴식과 명상의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힘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자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보자. 풍나물시루에 매일 물을 붓다보면 어느 날 콩이 풍나물로 속 자란 것처럼, 자녀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밑거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매일처럼 자녀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명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시77:12).

오자유

oh fre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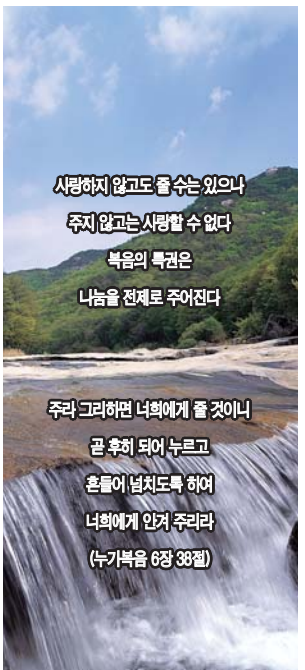
Q&A

Q: 직장 생활 중에 만난 동료와 3년간 사귀다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배우자 될 사람이 불신자라고 결혼을 반대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혼한 후에 믿게 하면 안될까요?

A: "바다에 나갈 때는 한번 기도하고, 전정터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세 번 기도하라."는 중동지방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믿지 않은 자와 믿음을 같이 하지 말라"(고후6:14)고 말씀하십니다. 빌리 그레할 목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는 것"이라는 단호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 왕도 이방여인들과의 무분별한 혼인으로 인하여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상대방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마음 고생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의 영혼이 파멸해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면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는 본은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살수는 있으나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복음의 특권은
나눔을 전제로 주어진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휴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